

日十三月七 戊戌 謂 陰

大韓光武二年九月十五日 木曜

渺然호지라聞者니疑하야曰學校는教育하는處所인즉如許微細之物을 竊盜호者가必無호지니畢竟此席이 羽化飛去하얏나보다고하더라

電報

●倫敦九月二日發) 자마이카島의 米國에合並코져 하난運動은 黑人의 反對가잇 실뿐아니라一般人民의贊成이 無害으로 大端히 困難中이라더라

●(倫敦同日發) 르레후수事件에對하야

拘引 佛國陸軍大佐한리民 난獄中에서 刺刀로 그咽喉를 刺하야 自殺하였다더라

●(倫敦九月二日發) 佛國人民들이 國際平和會議와 軍備縮小에 關한 露帝의 宣言을 根本하야 惹起호 疑懼와 激昂은 한리氏二欵을 合하야 之 못 危險하기 以지 國內를 亂케 흘러이라더라

즉 후 소실은 분명함이 있느냐 그 쪽
하투서 혼사함에 거주와 성명이 업스
나이는 비록 본보에 고지호 일이 있
스나 가히 즐거워 못 헤지라 종금 아
후로는 무론 하인이 듣지 본사에 투서
하시거든 성명과 거주을 분명이 고록
해야 너이시오

●大韓서新發名호葉卷烟은 香品이呂宋草와 對等하온디 價인즉 미우廉하오니
僕君子는 마니來購하심을 望하

百枚定價金三十八錢

製造開城府內朴成茂
賣所中署錫洞金錫桓

●독립 신문은 우리 나라에 츠음으로
발명호 국문 신문 인디 지명 상에 유
익호 론설과 외국 통신과 전보를 만
이 과제 흘렸으나 첨군조난 만이
들 수서 보시오

●미일 신문은 국부에 츠음으로 미
일 출판호 신문 이온디 론설 잡보에
기요하고 중미 있는 말이 만수오니
첨군조는 만이 수들 보시오

●본사에서 新聞事務를 擴張하야 本月五
일 브터 發刊하 올난디 本社社員의 배는 依
例히 送致하 올터이 오나 居地가 分明치 못
하오니 股本標가 자신社員은一一히 姓唧
下에 居地統戶를 詳錄하 야 本社로 보너시
오

●데국 신문은 근조에 신설호 신문이
온디 학문 있는 말과 과이호 소문을
만이 과제 흘렸으나 첨군조는 수

●근일에 본사 투서함에 드는 글을 본

本社告白

●本社에서 其間新聞機械와 鑄字를 新買
運來하야 事務가 擴張하 기로 本月五일 브
터 發刊하 올는 5일曜일에 每日刊行
하고 新聞紙本은 現樣과 同호四面이 오
法은 國漢文을 交用하고 辭意는 開明進步
에有助호論說과 每日出發하는 官報抄錄
과 日聞所不聞하는 雜報와 外國의 通信及
電報를 揭載하야 世界의 類萬不同호奇聞
異說을 一朝尺紙上에 盡覽하려 이 오니 伏
僕君子는 此新聞을 買覽코져 하시거든
願
僕君子는 此新聞을 買覽코져 하시거든
尊姓華卿과 居住統戶를 分明이 記錄하야
本社로 送傳하 시면 本社에서는 每日早朝
에 逐號信發하 오리다

新聞價는 每張에 葉錢五分이 오 一朔에 葉
錢一兩이 오 6朔先給에 葉錢五兩五錢이
오 一年先給에 葉錢十一兩이 오 外方에서
보시는 아는 以上定價外에 郵票價만添入
흘러이 오니以此
照亮하 와豫先通知하 쇼서

本社은 中署澄清坊黃土峴第二十三統七
戶前右巡廳

總務員 羅壽淵
社長 南宮憶